

광산구, “한 가정을 살리기 위해 마을이 움직였다”

광산구에 따르면, 우산동 한 연립 주택에 부부와 다섯 자녀 총 7명이 거주하고 있는 가정에 큰 위기가 닥쳤다.

아이들의 어머니 A씨가 뇌종양으로 쓰러져 지난 10월 초 수술을 받은 것. 이후 뇌경색까지 발생했고, 이달 초부터 항암치료를 위해 병원 입원 중이다. 남편 B씨는 회사를 휴직하고 병원에서 아내 병간호에 전념하고 있다. 당분간 다섯 자녀는 부모 없이 지내야 해 양육과 돌봄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자 마을 주민들이 나섰다. 아침, 저녁으로 A씨 집을 찾아 아이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살피고,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반찬을 챙겨주고 있는 것.

주민들의 노력에 우산동 행정복지센터도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광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 광주사회서비스원 등과 협력해 맞춤형

형 급여, 생필품 및 반찬 지원, 긴급 돌봄(아이돌봄), 아동급식 등 복지 서비스 연계·지원에 나선 것.

우산동은 각 지원기관,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송우초·광산중)와 사례회의를 열고, A씨 가정의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부모가 없는 동안 아이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정서 안정에 신경을 쓰고 있다. 어 느덧 A씨 가정의 문제는 우산동 마을 전체의 것이 됐다.

A씨가 입원을 마친 뒤 집으로 돌아갈 때를 대비해 더 나은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작업들도 활발히 추진 중이다.

개인, 기관 등의 후원도 잇따르고 있다.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이 ‘돌을손 위기 가정지원금’ 200만원을 지원한 데 이어 4M(고정완 대표이사)와, 행복공감동행봉사단 등 후원자들이 가정이 조속히 안정을 찾길 바란다며 간병비 350만 원을 쾌척했다. /서기만 기자

남구 양림동 버들숲 주민어울림센터 한끼 2천원 무한리필·음료 1천원 판매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 양림동 버들숲 주민어울림센터에 한끼 2천원에 무한리필 식사를 제공하는 파순밥집과 각종 차를 1천원에 판매하는 공방찻집이 문을 열었다.

특히 양림동 도시재생사업 과정에서 지난해 창립한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과 까리따스 수녀회에서 파순밥집 아궁이와 공방찻집에 군불을 때우면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이웃 공동체에 사랑의 온기도 더해지고 있다.

남구는 “힘들고 지친 청년들, 지역 주민들이 버들숲 주민어울림센터에서 마음 편히 쉴 수 있도록 파순밥집 공간을 2년간 무상 제공하고, 식당 운영에 필요한 집기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최근 버들숲 주민어울림센터 2층에 문을 연 파순밥집은 양림동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과 까리따스 수녀회에서 운영하는 식당이다. /서기만 기자

까리따스 수녀회 소속 수녀들께서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 몸담으면서 지역사회 공헌 일환으로 파순밥집을 마련한 것이다.

이곳 식당은 평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재료 소진때까지 문을 열어, 수익 창출을 위한 식당이 아닌 만큼 매일 80인분에 한해 한끼 식사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양림동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과 까리따스 수녀회에서는 파순밥집 아래층인 1층에 주민공유 공방찻집을 마련, 각종 음료를 1천원에 판매하고 있다.

휴식이 필요한 청년 및 주민들에게 파순밥집과 공방찻집 공간을 내주고, 이곳에서 각종 고민에 대한 상담도 진행하기 위해서다.

남구는 협동조합 초기 사업비를 통해 식기세척기, 냉장고, 테이블, 사무실 운영비를 제공하고, 양림동 특화상품 피칸 호두과자 제조기 구입비 등을 지원한다. /서기만 기자

서구 종이 상자 케이스 도입

광주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최근 기후위기대응1번지 녹색서구 구현을 위해 기존의 두꺼운 우단 및 고급 상자 케이스 대신 종이 케이스를 활용한 상자 케이스를 제작해 사용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협약식, 위촉식, 시상식 등에 사용하는 상자 등의 케이스는 두껍고 재활용이 어려워 쓰레기 배출량을 증가시킨다.

이에 서구는 지난 7~8월 실시된 서구와 함께 내 삶을 바꾸는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위촉장 및 수료장 상장을 종이케이스로 사용하기” 제안을 채택했으며

종이 케이스를 제작한 후 11월부터 부서 내에서 추진하는 협약식, 위촉식 등에서 위촉장 및 수료증을 수여 시 케이스로 활용하고 있다.

종이 상자 케이스는 단가가 저렴해 30% 이상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으며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

서구는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종이 케이스 사용을 전 부서로 확대·권고해 청사 내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공공부문에 실천할 수 있는 탄소중립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확산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환경을 배려한 다양한 시책 추진으로 감(減)탄 서구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기만 기자



광주 동구(구청장 임택)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근절과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2022년도 초등학교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동구청 제공

동구,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광주 동구(구청장 임택)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근절과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2022년도 초등학교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동구는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지한초등학교 등 관내 11개 초등학교를 순회하며 15차례에

걸쳐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 기간 동안 관내 11개 초등학교 교사와 학생을 비롯해 동부경찰서, 동부 녹색어머니회, 동부 모범운전자회, 해병대전우회 동부지부 등 봉사단체가 뜻을 함께했다.

이들은 차량 통행 및 학생 등 보행자가 많은 등교 시간에 맞춰 ▲안전속도 지키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 금지 ▲운전자·보행

자 안전 수칙 준수 등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적극 알렸다.

임택 구청장은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 실현을 위해서는 운전자, 학부모 등 시민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어린이 교통사고 근절과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될 수 있도록 앞장서나가겠다”고 말했다. /서기만 기자

북구, 행정정보화 추진 우수기관 선정 전국 자치구 중 유일하게 행안부 장관 표창

광주 북구(구청장 문인)는 지방행정공통시스템 운영 및 개선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전국 자치구 중 유일하게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표창은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행정정보시스템 및 공통기반 장비의 안정적 운영과 지속적 개선에 기여한 단체와 개인에 수여하는 상이다.

이에 북구는 행정정보시스템 안정적인 운영, 업무의 디지털 전환 추진, 데이터 기반의 주민편의 정보 제공 등 행정 정보화를 선도적으로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아 장관상을 수상하게 됐다.

특히 행정정보시스템의 기능을 활용한 동 생활불편신고센터 운영,

스마트 대면보고 시스템 구축 등은 업무처리 효율 향상과 예산 절감 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 및 제공 ▲구 홈페이지 예약시스템 구축 ▲클라우드 저장소 구축·운영 ▲영상회의 시스템 활성화 ▲주민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사업 추진으로 행정 정보화를 고도화하고 주민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했다는 평가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행정업무 효율 향상을 위해 행정정보시스템 기능개선과 활성화에 전 직원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정보화 분야 선도적인 자치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기만 기자

전투기 소음피해를 후손 대대로 물려줄 수 없습니다.

무안군민은 전투비행장 이전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영상자료
자세히보기

언론보도 +
[뉴스1 `21.2.2.] ▶민심탐방◀ "군공항 이전 무안군 희생 강요 안 돼... 국방부 나서라"
[뉴스1 `21.1.25.] 광주시 전남도 입정차 '땡땡'...군공항 이전 '답보 상태'

범국민대책위원회 +
(`20.11.24.) 새마을지도자 광주 군공항

진실은 이렇습니다
광주전남 상생발전을 위한 무안군민의 희생은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자세히보기